

TPP 협상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 현황과 시사점

박혜리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hrpark@kiep.go.kr, Tel: 3460-1029)

차 례 ●●●

1. 배경
2. TPP 협상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 현황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TPP 정부조달 분야는 상품 및 서비스, 국영기업, 지적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상이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에서 조달 분야는 비중 있는 이슈로 다루어질 것이 분명함.
 - 정부조달 분야 협정문은 WTO-GPA를 준용하되 개별국의 기체결 FTA 정부조달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므로, GPA/FTA 양허안을 중심으로 TPP 협상국들의 조달시장 개방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논의 방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 우리나라는 GPA 가입국이며 TPP 협상국 대부분과 FTA를 통해 정부조달을 개방하고 있어 TPP 정부조달 양허협상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음.
 - 그러나 GPA나 FTA에서 중소기업 보호조치나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 있고, 건설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양허 하한선을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서는 수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 규정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비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함.
 - 한편 주력 시장인 미국에 대해서는 자국산 우선구매정책인 'Buy American' 정책을 완화 또는 금지하도록 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달시장 개방을 유도하는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공조하여 대상 국가별로 차별화된 협상전략이 필요함.
- ▶ TPP 타결 시 주력 시장인 미국시장 진출 확대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아시아 지역의 신규시장 개척과 신규 품목의 발굴임.
 - 특히 정부조달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에 근접해 있는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높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해외건설 분야 진출에 유망한 지역임.

1. 배경

■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정부조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주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정부조달을 포함한 규범 이슈들의 논의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TPP 각료 회의¹⁾에서는 협상타결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는데, 공동성명에서는 핵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중요 이슈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함.
- TPP에서 정부조달 분야는 상품 및 서비스, 국영기업, 지재권 등 핵심 쟁점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중 있는 이슈로 다루어질 것은 분명함.

■ TPP 정부조달 협상은 기본적으로 WTO-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협정)를 준용하되 개별국이 체결한 FTA 정부조달 협의 내용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임.

- 현재 WTO 정부조달 논의는 '중국의 가입'이라는 과제만을 남기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개정작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TPP 정부조달은 이러한 개정 GPA의 성과물을 반영할 것으로 보임.
 - 현재 개정 GPA는 2014년 4월 6일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부 발효되지 않은 국가들은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개별국들은 FTA를 통해 WTO 플러스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양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조항을 포함하기도 하면서 보다 유동적인 정부조달 규정을 운용해옴.

■ 한편 TPP와 함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RCEP에서도 정부조달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아 국가가 주도하는 RCEP 정부조달은 소극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에서는 정부조달 시장 개방이 미국의 중요 정책 이슈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포함됨은 물론이고 개방 수준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서는 정부조달 분야의 협력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우리나라가 향후 동아시아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보적인 기준에 맞춘 정책 마련이 필요한바, TPP 협상국을 대상으로 정부조달시장의 개방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2014년 5월 19~2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됨.

2. TPP 협상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 현황²⁾

가. 국별 정부조달시장 규모

■ 정부조달시장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각국 정부, WTO 등의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국가별 조달 규모를 살펴볼 수 있음.

- [표 1]에서와 같이 TPP 협상 중인 12개국의 총 정부조달 규모는 2조 7,425억 달러에 달하며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 등이 추가적으로 가입한다면 그 규모는 상당함.
- 각국의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1조 7,387억 달러로 약 63.4%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일본의 정부조달 규모는 6,788억 달러로 24.7%를, 호주는 약 1,369억 달러로 약 4.9%를 차지함.

※ 한국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34억 달러³⁾임.

표 1. TPP 협상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

(단위: 10억 달러, %)

회원국	총액	비중*
호주	136.9	4.99
브루나이	0.5	0.02
뉴질랜드	21.7	0.79
말레이시아	28.7	1.05
미국	1,738.7	63.40
베트남	21.9	0.80
싱가포르	11.8	0.43
칠레	11.7	0.43
페루	6.4	0.23
캐나다	33.6	1.23
일본	678.8	24.75
멕시코	51.8	1.89
TPP 총	2,742.5	100

주: * 비중 = 개별국 조달시장 규모/12개 TPP 협상국의 총 조달시장 규모

자료: "TPP Government Procurement Negotiations: Buy American Policy Banned, a Net Loss for the U.S." (<http://www.citizen.org>)

- 2) 일반적으로 개방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개방여부, 양허수준, 개방기관 및 기관별 성격, 부문별 개방 범위 등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개방여부 및 양허 하한선 수준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개방수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보다 상세한 분석은 심층 연구를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함.
- 3) "Procurement statistics for the year 2010 under article XIX:5 of The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WTO (http://www.wto.org/english/tratop_e/gproc_e/notnat_e.htm).

나. 국별 GPA 가입여부 및 FTA 체결 현황

- TPP 국가들의 WTO-GPA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한국은 GPA 회원국이며,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는 옵서버, 뉴질랜드와 중국은 GPA 가입 협상 중임.
 - 뉴질랜드는 2012년 10월 GPA 가입협상을 시작하여 현재 2차 양허안을 제출한 상태임.
 - 중국은 2007년 12월 GPA 가입협상을 시작하여 현재 4차 양허안을 제출한 상태임.
- 한국은 TPP 국가들 중 일본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10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고, 대부분의 FTA는 정부조달챕터를 포함하고 있어 상호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함.
 - 단, 한·아세안 FTA에서는 정부조달 챕터가 없으며 정부조달시장도 개방하지 않음.

표 2. TPP협상국의 GPA 가입 현황과 우리나라와 FTA 체결 현황

국가	뉴질랜드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캐나다	멕시코	일본
GPA 가입여부 ¹⁾	▲	○	△		△	△	△		○	○		○
한국과 FTA ²⁾	협상 중	○	○	○	●	●	○	●	○	○	○	협상 중단

주: 1) ○ 가입국, △ 옵서버, ▲ 가입협상 중.

2) ○ FTA 체결, 정부조달시장 양허안 포함, ● FTA 체결하였으나 정부조달시장 미양허 또는 제한적 개방.

자료: WTO 및 산업통상자원부 참고하여 저자 작성.

- TPP 정부조달에서 개별국 조달시장의 개방수준은 해당 국가의 기체결 FTA와 WTO-GPA 양허안을 기준으로 설정될 것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TPP 협상국들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고 최근 개정협상을 통해 개방수준을 개선하였기 때문에 TPP 정부조달 양허협상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음.
 - 단 일본, 뉴질랜드와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으며 한·아세안 FTA에서는 정부조달시장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양허 협상이 필요함.

다. 정부조달 양허 현황

- 개정 GPA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TPP 협상국의 양허 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 조달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나 건설 서비스는 양허 하한선인 매우 높은 편임.

-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의 건설 서비스 양허 하한선은 500만 SDR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건설 서비스 양허 하한선은 1,500만 SDR로 매우 높음.
-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건설 서비스의 양허 하한선이 1,500만 SDR로 높지만, 일부 건설 서비스에 대해서는 450만 SDR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건설 서비스 양허 하한선이 가장 높음.

표 3. 각국의 GPA 양허 현황

(단위: 만 SDR)

구분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상품	서비스	건설	상품	서비스	건설	상품	서비스	건설
개정 전	한국	13	13	500	20	20	1500	45	-	1500
	미국	13	13	500	35.5	35.5	500	40	40	500
	캐나다	13	13	500	35.5	35.5	500	35.5	35.5	500
	일본	13	13	450	20	20	1500	13	13	1,500 or 450
	싱가포르 ¹⁾	13	13	500	-	-	-	40	40	500
개정 후	한국	13	13	500	20	20	1500	40	40	1,500
	미국	13	13	500	35.5	35.5	500	25 or 40	25 or 40	500
	캐나다	13	13	500	35.5	35.5	500	35.5	35.5	500
	일본 ²⁾	10	45 or 10	450	20	150 or 20	1500	13	45 or 13	1,500 or 450
	싱가포르	13	13	500	-	-	-	40	40	500

주: 1) 싱가포르는 지방정부 없음.

2) 일본의 서비스 조달의 경우 높은 양허 하한선은 건축, 엔지니어링, 기타 기술 서비스에, 낮은 양허 하한선은 기타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임.

자료: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Coverage schedules, WTO(http://www.wto.org/english/tratop_e/gproc_e/gp_app_agree_e.htm#revised GPA)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은 전체적으로 GPA 개방수준보다 다소 높은 편이나, 이는 과거 체결한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등에서 그러하고, 최근 체결한 FTA에서는 GPA 양허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인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의 경우 FTA에서보다 GPA에서의 조달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편임.
 - 미국, 캐나다의 경우 FTA에서는 미양허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GPA의 양허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공공기관 건설 서비스의 경우 한·싱가포르 FTA 양허 하한선은 1,500만 SDR인 데 비해 GPA에서는 500으로 훨씬 낮음.
- 기체결 FTA⁴⁾에서 우리나라의 조달 주체별 양허수준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의 양허 하한선은 GPA 수준보다 낮고 건설 서비스의 양허 하한선은 GPA 양허 하한선과 동일함.
- 지방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의 양허수준은 GPA와 동일하나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에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건설 서비스의 양허 하한선은 GPA 수준과 동일함.
- 공공기관의 경우 상품 조달의 양허 하한선은 GPA와 동일하거나 다소 높으며, 서비스는 한·칠레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에서는 양허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GPA를 통해 개방되었으며, 건설 서비스의 양허 하한선과 동일함.

표 4. 우리나라 기체결 FTA의 정부조달 양허 현황

(단위: 만 SDR)

FTA (체결순)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상품	서비스	건설	상품	서비스	건설	상품	서비스	건설
한·칠레 FTA	한국	5	5	500	20	20	1500	45	미양허	1500
	칠레	5	5	500	미개방			45	미양허	1500
한·싱가포르 FTA	한국	10	10	500	20	20	GPA 준용	40	40	1500
	싱가포르	10	10	500	싱가포르 지방정부 없음.			40	40	1500
한·페루 FTA	한국	9.5	9.5	500	20	20	1500	40	40	1500
	페루	9.5	9.5	500	20	20	1500	40	40	1500
한·미 FTA	한국	1억 원	1억 원	500SDR (74억 원)	미양허					
	미국	10만 달러	10만 달러	500SDR (740만 달러)	미양허					
한·호주 FTA	한국	13	13	500	20	20	1500	45	미양허	1500
	호주	13	13	500	35.5	35.5	500	45	미양허	1500
한·캐나다 FTA	한국	1억 원	1억 원	500	미양허					
	캐나다	10만 캐불	10만 캐불	500	미양허					

주: 1. SDR = 1745.38원(기획재정부 고시 기준, 2013년 1월 1일~2015년 1월 1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조하여 저자 작성.

라. 국별 개방 수준 평가

- 국별 GPA 가입여부 및 FTA 체결 현황, 양허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현재 개방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4) TPP 협상국과의 FTA에 한함.

-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는 GPA 가입국이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 정부조달 전 분야가 개방되어 진출이 가능하며, WTO와 FTA를 통한 구속력이 있고 협의 채널도 마련되어 있음.
 - o 미국과 캐나다는 조달시장 규모 면에서 싱가포르는 건설 서비스 투자 부문⁵⁾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유망지역임.
- 호주, 페루, 칠레, 멕시코는 GPA 가입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FTA를 통해 상호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함. 그러나 다자 차원의 구속력은 없으므로 분쟁해결이나 협의 등은 양자 채널을 통해서만 가능함.
- 뉴질랜드, 일본은 우리나라와 FTA는 체결하지 않았으나 현재 GPA 또는 FTA 협상 중인 국가로, 조만간 조달시장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두 국가 모두 시장규모 측면에서도 진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임.
-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은 GPA 미가입국이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서도 정부조달 부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달시장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o 특히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현재까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외국 공급자들에게 자국 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TPP 정부조달 협상에서 새로이 양허안을 마련해야 함.
 - o 한편 이들 국가는 기존에 개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TPP를 통해 진출할 수 있는 신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함.

표 5. 국별 정부조달시장 개방 현황 요약

구분	해당 국가	상세 설명
GPA/FTA를 통해 개방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GPA 가입국이며 우리나라와 FTA 체결을 통해 정부조달시장 개방 • 다자적/양자적 채널 통한 구속력, 협의 및 분쟁해결 가능 • 미국, 캐나다 정부조달시장 규모가 크며, 싱가포르는 건설 서비스 투자 유망지역
FTA를 통해 개방	호주, 페루, 칠레,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PA 미가입국이나 우리나라와 FTA 체결을 통해 상호 정부조달시장 개방 • 양자 채널을 통한 구속력, 협의 가능
GPA/FTA를 통한 개방 예정	뉴질랜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GPA 미가입 또는 FTA 미체결 국가이나 협상 중인 국가로, 향후 정부조달시장 개방 예정
GPA/FTA 미개방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PA 미가입/우리나라와 양자간 FTA 미체결 • TPP 정부조달 협상 시 신규 양허안 제출 필요 • TPP를 통한 신규 진출가능 시장

자료: 저자 작성.

5)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실적 통계를 집계한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많은 건설수주를 하는 국가임.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가. 향후 전망

■ 향후 TPP 정부조달 협상은 개정 GPA의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협정문 작성이 진행되고 양허협상은 각 참여국들의 양허안(FTA와 GPA를 통해 제출)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발효된 개정 GPA는 양허기관 확대, 양허 하한선 인하뿐 아니라 양허범위를 확대(민간투자, 디지털 생산품을 정부조달 범위에 포함), 전자조달 관련 규정, 개도국에 대한 조치 등 새로운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TPP 정부조달은 이러한 규정을 반영할 것임.
- 특히 최근 정부조달에서 민간투자 형식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개정 GPA에서 BOT가 정부조달 대상으로 포함되고 최근 체결되는 FTA 정부조달에서도 대부분 민간투자를 조달대상으로 포함함.⁶⁾

■ 각 회원국의 기체결 FTA를 고려함에 있어 양국간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이나 GPA에서 예외로 인정받은 규정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일반적으로 GPA에 비해 FTA 정부조달 합의는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지며 이러한 FTA 규정들은 정부조달 개방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최소한의 내용만이 TPP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그만큼 각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므로 협상과정에서 대립구도가 형성될 것임.

■ TPP를 주도하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조달시장 개방도가 낮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기체결 FTA에서의 정부조달 양허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조달과 광범위한 범위의 서비스 조달까지 포함함.

- WTO-GPA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5개국 뿐임.
- 따라서 개방 경험이 없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가 거부감 없이 개방 절차를 진행하고 순조로운 협상을 위하여 단계별 양허 방식⁷⁾을 채택하거나 개도국에 대한 과도기적 조치(가격 특혜, 대응구매⁸⁾, 특정기관이나 분야의 단계적 추가)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

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2), 「WTO 조달협정 및 FTA를 활용한 해외민간투자사업 진출 방안 연구」, p. 44, 정책연구 보고서.

7) 이행경과 연차에 따라 차별적 양허 하한선을 적용하는 양허 방식.

8) 국산부품사용의무나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하거나, 투자의무 및 역수출을 조건으로 정부조달계약을 행하는 것.

나.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GPA 가입국이고 다수의 FTA를 통하여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양허수준 또한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TPP 정부조달 양허협상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음.

- 그러나 앞서 언급한 예외조치의 허용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조치들이 있어 수세적인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보호조치나 학교급식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 서비스 부문의 높은 양허 하한선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요구에 적절한 대응 논리가 필요함.
- 한편 주력 시장인 미국이나 향후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공세적인 전략도 필요한데, 자국산 우선구매정책인 “Buy American”나 “Buy China” 정책을 금지하도록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 현재 미국 내 일각에서는 TPP를 통한 정부조달 협상에서 “Buy America” 정책을 고수할 수 없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TPP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면 TPP 정부조달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⁹⁾도 있으며, 그만큼 ‘Buy America’ 정책은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조하여 공공기관 양허범위에 국유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중국의 TPP 가입에 앞서 GPA 양허를 통해 기개방된다면 TPP에서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TPP 발효 이후 동아시아지역 정부조달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분석과 국가별 유망상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지역별 맞춤형 진출전략을 구상해야 함.

- 시장규모를 고려하면 미국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가 실적 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이지만, 신규시장 개척, 신규 진출품목 발굴 측면으로 본다면 아시아 시장에 적합한 품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정부조달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에 근접해 있는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있음.
- 또한 GPA가 개정되면서 민간투자가 정부조달 범위에 포함되었는데,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해외 건설 유망지역¹⁰⁾이므로 TPP가 체결되면 이들 지역에 대한 진출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 일반적으로 민간투자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율되지만 조달 분야는 WTO-GPA를 통하여 어느 정도 국제 표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TPP 정부조달 부문에 포함되면 민간투자 부문에 대해 국제적 통상규범을 적용할 수 있어 투명성 및 효율성이 강화됨. KIEP

9) “TPP Government Procurement Negotiations: Buy American Policy Banned, a Net Loss for the U.S.” (<http://www.citizen.org>)
 10)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실적(누계 기준)이 싱가포르 5위, 베트남 7위, 말레이시아 12위로 나타남.